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8 보령~군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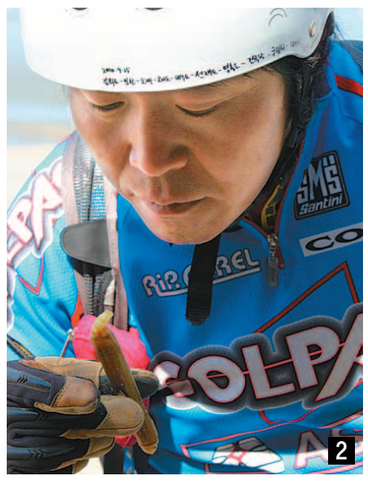
8차 경로

집단가출팀 자전거 미각여행 계획

1 강화도 강화대교~초지대교	16 고흥~여수
2 초지대교~전곡항	17 여수~남해
3 전곡항~당진	18 남해~거제도
4 당진~서산	19 거제도~부산
5 서산~안면도	20 부산~포항
6 안면도~태안	21 포항~울진
7 태안~보령	22 울진~삼척
8 보령~군산	23 삼척~양양
9 군산~변산	24 양양~고성
10 변산~무안	25 고성~인제
11 무안~목포	26 인제~양구
12 진도~해남	27 양구~화천
13 해남~완도	28 화천~철원
14 완도~장흥	29 철원~파주
15 장흥~고흥	30 파주~강화도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트위터 @pudgala72

1



2

3

1 군산항에서 출발한 연락선을 타고 선유도에 도착한 일행들이 배에서 내려 선착장 램프를 올라오고 있다. 2 선유도 동네 청년들이 잡은 맛조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필자. 지금까지 본 맛조개 중 가장 큰 놈이었다. 3 선유도와 다리로 연결되어있는 장자도에서의 점심식사. 날씨가 좋아 식당 바깥의 평상을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실치부침개와 파김치, 갓김치는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아래 더욱 풍부한 미각을 선사했다.

짭조름한 실치부침개 아삭아삭 파김치…

"도저히 눈에 밟혀 안되겠다, 선유도로 가자"
대장 한마디에…다시 새만금 방조제로 GO

신선이 놀다갔다는 섬 선유도 도착
썰물 빠진 백사장선 맛조개 사냥 한창인데
당장 뛰어들고 싶건만…아! 마지막 배 오후 4시

자연과 하나된 맛…장자도 실치부침개

"도저히 눈에 밟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변산해변에서 야영을 마치고 이른 새벽부터 백사장을 거닐며 바다 멀리 한 곳을 응시하던 허영만 화백이 아직까지 침낭에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대원들에게 말했다. 어제 해질 무렵 새만금 방조제를 달릴 때 지나쳤던 섬 선유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선유도는 새만금 방조제의 서쪽 꼭짓점으로 이제는 방조제로 연결되어 육지로 변한 신시도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떠있는 섬이다. 고군산군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섬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신선이 놀다갔다'는 이름처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선유도의 치명적 유혹에 빠진 대장의 한마디에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들 고민스러웠다. 선유도를 가기 위해서는 힘겹게 주파한 34km의 새만금 방조제를 다시 넘어 거꾸로 군산항까지 되짚어간 뒤 여객선을 타야하기 때문이다.

전국 해안선일주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먼데, 고작 섬 하나를 들러 가기 위해 어렵사리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다가 언제 전국일주를 마치겠느냐는 푸념도 있었으나 대장의 뜻은 이미 확고했다. 오늘 안으로 변산국립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을 지나 굴비로 유명한 영광까지 진출하려던 계획은 즉석에서 변경되어 오전 9시30분 군산발 선유도행 여객선을 탄 우리들은 한 시간여 후 선착장에 발을 디뎠다.

비좁은 선유도 선착장은 여객선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관광객들로 콩나물시루. 게다가 민박집이나 식당 주인들이 예약한 손님을 수송하기 위해 몰고나온 전동카트 수십 대가 인파와 뒤섞여 연출된 아수라장은 자전거를 끌고 통과하기가 버거웠다. 그런 와중에 어제 지났던 새만금 방조제가 다시금 코앞에 있는 것을 보니 힘이 쭉 빠진다. 대체 이런 곳을 왜 굳이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찾아온 것인지 적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실망은 오래 가지 않았다. 붐비는 선착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파출소쯤에 이르자 비로소 한적하고 찬란한 고군산군도의 진면목이 마치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된 것처럼 눈앞에 시원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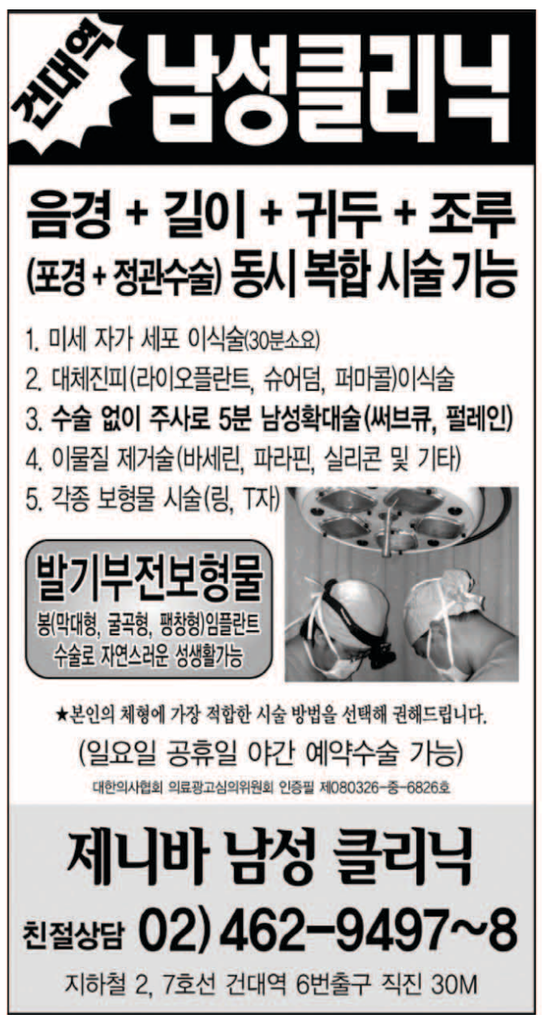
마이산을 쏙 빼닮은 장엄한 바위산 망주봉을 바라보며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톱 위로 난 길은 꿈결처럼 달콤했다. 파란 하늘, 그보다 더 파란 바다, 그리고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빛나는 백사장…. 건너편에 떠 있는 대장도와 장자도는 마치 신기루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맛조개 잡는 최고 비결은 맛소금!

옥돌해변을 찾아가는 길에 바구니를 들고 가는 한 무리의 청년들을 만났다.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니 씨알이 굵어 먹음직스런 맛조개가 그득하다. 아침나절에 썰물이 빠져나간 백사장에서 잠깐 캔 것이 바구니로 한 가득이라니. 맛조개 사냥에 필요한 것은 맛소금 -그냥 소금이 아니고 꼭 화학조미료가 첨가된 맛소금이어야 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이다.

맛조개가 숨은 곳은 모래밭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그 구멍에 소금을 살살 뿌리면 조개가 촉수를 쭈~욱 내밀고 그 때 잡아채면 되는 것이다. 맛조개로 탕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있기에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바지가랑이를 둥둥 걷어부치고 조개를 캐고 싶었다. 그러나 군산항으로 돌아가는 오후 4시 마지막 배가 떠나기 전 이 아름다운 섬을 몽땅 둘러봐야 했으므로 입맛만 다실 수밖에….

선유도를 한바퀴 휘돈 뒤 다리를 건너 장자도를 지나 대장도로 넘어간다. 섬을 연결한 다리는 폭이 좁은 탓에 자동차는 통행이 어려워 마을 주민들은 자동차 대신 전동카트를 타고 다니는데 대부분 골프장에서 쓰던 것들이어서 'OO컨트리클럽'이라는 로고가 그대로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대장도는 지형이 무척이나 험해서 장자도와 교량으로 연결된 초입에만 펜션 몇 채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울창한 해송숲인데 양지바른 남쪽 사면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펜션들의 모습이 꽤나 이국적이다.

》 25면 '자전거 식객'으로 이어집니다